

혁신도시 효과에도 전남 인구 지속 감소

올 들어 나주 5400명 증가 불구 6900여명 줄어 광주 수완동 8만명 돌파...화정2동 8430명 급증

행자부 9월 주민등록 인구

나주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효과에도 전남 인구가 또다시 감소하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내 1인 세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남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190만2077명으로, 전년(190만8996명)에 비해 6919명이 줄어 들었다.

반면, 지난달 나주혁신도시의 빛가람동의 주민등록 인구는 1만7924명으로 전년 대비 5472명이 늘어났다.

나주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남 전체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은 나주혁신도시 이외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인구는 지난해 말 190만8996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8년 이후 17년만에 인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1년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남에서 광주가 분리된 1986년 이후 30년 동안 전남 인구가 늘어난 것은 1998년과 2010년 두 해 뿐이었다.

이 가운데 2010년은 전국 거주 불명자

일괄 등록 때문으로,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1998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

광주 인구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47만2379명으로, 전년에 비해 18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에 비해 주민등록 인구가 급증한 곳은 서구 화정2동으로, 지난해에 비해 8430명이 증가했다. 이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주 광산구 수완동은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가 8만25명으로 집계되면서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동 중 7번째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광양시 증마동이 5만561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영광군 낙월면(626명)·완도군 생일

면(853명)·강진군 옥전면(784명)·순천시 외서면(949명)·화순군 이서면(990명)·보성군 문덕면(991명) 등 전남에서 5곳의 읍면동이 인구 100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완도군 금당면(1056명)·화순군 청풍면(1115명)·신안군 발금면(1144명)·보성군 노동면(1191명) 등이 인구가 적은 읍면동으로 포함됐다.

광주와 전남의 1인 세대수 비율도 높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정도로 1인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1인 세대수는 19만3982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33.13%를 차지했다. 전남은 33만7777세대로 전체 세대수 가운데 40.17%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1인 세대수 비율은 34.8%였다.

4조원대 광주시 금고 유치 경쟁 본격화

시, 이달까지 제안 공고

4조원대 광주시 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 선정작업이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

혔다. 이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금고 유치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달 초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확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은행별로 유·불리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지역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다.

광주시는 금고 지정 방침이 확정되면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 2주간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9~12월 이내로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11월 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해 시의원, 교수, 금융전문가 등으로 선

정하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2012년에는 10명이 심사위원이 맡았다.

광주시는 오는 11월중 내부방침을 통해 세부적인 배점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선정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평가 방법 등의 공개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배점이 5점인 경우 1위 기관이 5점, 다음이 4점, 3점 등 순위별 평가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정 이후 심의위원 비공개를 전제로 은행별 점수 등도 공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정 통지 20일 안에 약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보통 각종 심사를 통해 업체, 위탁기관 등을 선정할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1, 2 금고로 맡은 광주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해 농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경쟁에 뛰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금고 규모는 2012년 기준 1금고가 전체 예산 3조5629억원 중 3조4776억원, 2금고는 853억원이다.



대구경북호남향우회 초청 이낙연 전남지사가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대구경북호남향우회(회장 박덕주) 회원 5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노벨경제학상에 올리버 하트·벤트 홀름스트림

올리버 하트(영국·원쪽) 하버드대 교수와 벤트 홀름스트림(핀란드) 마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하트 교수와 홀름스트림 교수를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트 교수는 2014년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던 경력도 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 교수가 다양한 문제

들을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인 '계약 이론'(contract theory)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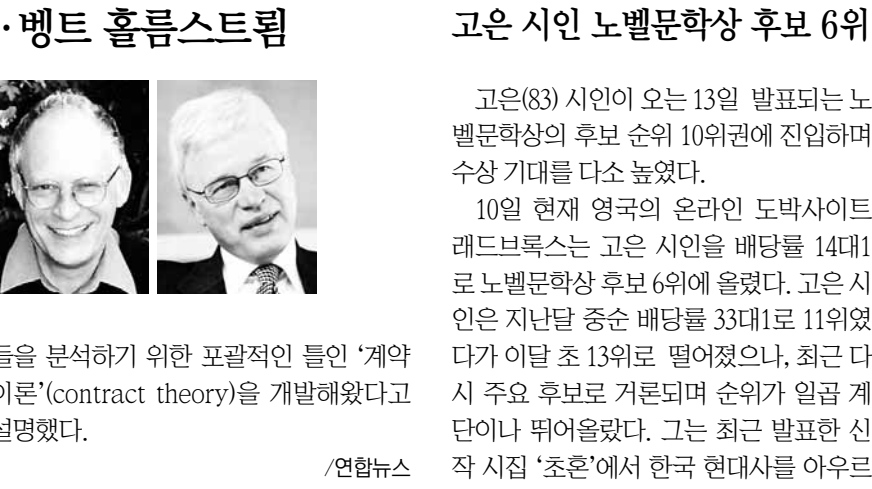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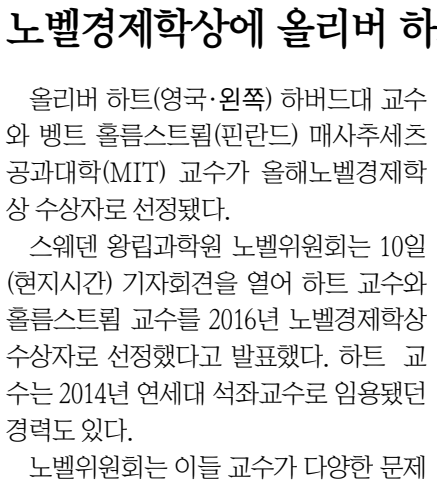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후보 6위

고은(83) 시인이 오는 13일 발표되는 노벨문학상의 후보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며 수상 기대를 다소 높였다.

10일 현재 영국의 온라인 노벨사이트 래드브룩스는 고은 시인을 배당률 14대1로 노벨문학상 후보 6위에 올렸다. 고은 시인은 지난달 중순 배당률 33대1로 11위였다가 이달 초 13위로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주요 후보로 거론되며 순위가 일곱 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그는 최근 발표한 신작 시집 '초혼'에서 한국 현대사를 아우르

며 역사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는 제의 성격의 시로 다시 한 번 거장다운 작품 세계를 보여 주기도 했다.

순위가 크게 오른 고은 시인을 비롯해 래드브룩스의 노벨문학상 전망은 최근 크게 오동쳤다. 지난달부터 1위를 차지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5대1)는 2위로 내려가고, 4위로 뒤쳐져 있던 케냐 출신 소설가 응기 와 티옹오(4대1)가 1위로 뛰어올랐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7력)를 10배높인다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병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활동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진행 중!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레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70평 ▶ 감정이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6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2003년식) ▶ 감정이 4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까지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이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동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 좋음 ▶ 감정이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은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 감정이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 좋음 ▶ 감정이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동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정이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정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원림,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형 ▶ 거래가 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삼성 갤럭시노트7 판매 전격 중단

美서도 발화...여론 악화에 '교육지책'

소비자 안전 우선 리스크 관리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생산을 전격 중단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소비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교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의 단호한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는 평가를 얻으려는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10일 삼성전자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CP-SC, 중국 규제 당국 등 각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하에 갤럭시노트7 생산을 일시 중단했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발화 사례는 미국 5건, 한국 1건, 중국 1건, 대만 1건 등이다. 한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건의

추가 발화 사례가 제보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발화 사고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을 전후해 소비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삼성 스마트폰 전문 매체인 샘모바일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47명 중 2671명(49%)이 "삼성전자는 즉시 갤럭시노트7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은 CPSC의 공식 리콜에 앞서 지난달 초 자발적 글로벌 리콜을 발표한 것처럼 선택적이다. 시장 여론이 나빠진 외경에 사대 수습에서 CPSC의 결론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아울러 결함은 원인을 조사 중이 아니라 특정하는 등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발화 사고에 의한 최악의 소비자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된다.

인도 공급 연기...美 교환 중단 잇따라

각국 공급 상황

갤럭시노트7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것과 관련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글로벌 물량을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유럽 대륙 주요국과 인도 등 다른 시장에 대한 갤럭시노트7 공급 재개도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은 이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공급 중단 방지에 대해 삼성전자로부터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는 없으며 기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2위 AT&T와 3위 T-모바일은 갤럭시노트7의 판매와 교환을 전면 중단했으며, 4위 스프린트는 온라인 샵에서 이 제품을 내린 상태다. 미국 1위 이동사인 버라이즌은 온라인 샵에서 '재고 없음'으로 표시된 상태로 온라인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배터리 분리막·SW·설계 잘못된 수도

어떤 기술적 문제 있나

삼성전자의 새 갤럭시노트7은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갤럭시노트7은 발화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에서도 발화 보고가 잇따라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250만대에 이르는 구형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리콜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결함'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배터리 설계 상의 문제가 아닌 제조상의 문제로 발화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문제의 배터리를 제조한 관계 회사로

부터 제품 조달을 중단하고 전량 중국 ATL의 배터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9월 하순부터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새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의 '원인 진단'이 잘 못된 것이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갤럭시노트7도 구형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안의 분리막에 문제가 생겨 음극과 양극의 접촉이 생기며 불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이외의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10일 "외장 케이스 설계를 잘못했는지 소프트웨어상 문제가 있든지, 처음부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